

‘굴뚝 산업’ 기반 광주·전남 코로나 타격 컸다

13개 코스피 상장사 3분기 누적 매출 2.6%·영업이익 19.8% 줄어 금호타이어 37억·대우플러스 14억 적자...한전 1조5690억 ‘흑자’

단순 제조업이 몰린 광주·전남 경제는 코로나 19 타격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상장기업 2020년도 3분기 누적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14개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한국전력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9.8% 감소했다.

전국 평균 코스피 기업 매출 감소율은 3.9%로, 한전 실적을 포함하면 지역 감소율은 1.7%로 완화된다.

한전을 포함한 14개사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8조3384억원(한전 43조40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94억원(-1.7%) 줄었다. 한전은 저유가 영향으로 올 3분기 1조5690억원 영업이익을 내면서, 14개 지역 상장사들도 흑자 전환(영업이익 1조 7919억원)했다. 하지만 한전을 빼면 영업이익은 549억원(-19.8%) 줄어든 2229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3분기 들어 적자 전환한 코스피 기업은 금호타이어(-37억6300만원), 대우플러스(-14억 4600만원), 금호에이치티(-20억2300만원), 다스코(-22억9100만원) 등 4곳이다.

3분기 들어 전국 코스닥 기업 매출은 0.7% 증가하며 코로나19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역 상장기업들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역 코스닥 상장사 18개사 매출은 1년 전보다 8.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61.5% 감소했다. 총비용을 뺀 순이익 감소율도 69.7%를 나타냈다.

코스닥 18개사 매출은 1조2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898억원(-8.1%) 줄어 들었다.

지역 코스닥 상장사의 절반(9개사)은 올해 들어 적자영역을 했다.

올해 적자 전환한 기업은 파루·KPX생명과학·와토스코리아·정다운 등 4개사였고, 서산·제이웨이·에니젠·위니아답제·대한그린파워 등 5개사는 적자를 지속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상장인더스트리는 3분기 누적 6억7600만원 영업이익을 내며 유일한 흑자전환 기업이 됐다.

코스닥 상장기업 부진은 부채 부문에서도 드러났다.

지역 코스닥 상장사들의 부채총액은 1년 전보다

12.4%(876억9600만원) 증가한 7969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부채 증가율(7.2%)을 크게 웃돈 수치다. 부채비율도 전국 평균 증가율(0.7%포인트)을 넘는 5.4%포인트 증가한 63%를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 광주·전남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부진한 이유는 지역경제가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비대면이나 바이오, 배터리, 전자 관련 업계는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

다”며 “광주·전남 업계는 단순 제조업체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업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체 코스피 기업 평균(6.1%)을 웃도는 지역 기업은 광주신세계(30.4%), 한전KPS(12%) 등 2곳이었다. 코스닥(평균 6.5%)에서는 남화산업(36.9%), 와이엔텍(32.1%), 우리손에프앤지(16.4%), 오이솔루션(8.9%) 등이 좋은 성적을 냈다.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는 매출액순이익률에 대해서는 광주신세계(28.8%), 조선내화(12.8%), 대우플러스(11.9%), 한전KPS(7.6%), 대우에이텍(6.4%), 화전기공(6.2%) 등이 전국 평균(4.9%)을 넘겼다.

대우플러스는 영업이익에서 14억원 적자를 냈으나, 스마트저축은행을 지난 2월 매각하면서 순이익이 70억원 증가했다.

코스닥에서 전체 평균(4.7%)을 상회하는 기업은 남화산업(37.2%), 와이엔텍(23.7%), 우리손에프앤지(12.9%), 오이솔루션(9.9%), 남화토건(6.7%), 와토스코리아(5.8%), 고려시멘트(5.1%) 등이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12월 결산 지역 상장기업 32개사(코스피 16개·코스닥 20개사) 가운데 코스피 14개사·코스닥 18개사에 대한 실적을 분석했다. 우리종금(금융업)과 반기 감사의견을 거절한 세화아이엠씨가 제외됐고, 각각 지난해와 올해 코스닥 상장한 피피아이와 박셀바이오도 실적 비교 대상에서 빠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친환경 향기로 힐링하세요 24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이 2층에 마련된 ‘블루밍앰버’ 매장에서 향수·섬유탈취제·향초 등 친환경 향기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매장은 다음 달 3일까지 운영되며,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섬유 향수(70ml)를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전·전남개발공사, 조달청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

조달청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전남개발공사 등 광주·전남지역 2개 수상기업이 배출됐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난 23일 경기 성남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혁신제품 구매 등 혁신조달 성과 장

출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총 35개의 사례, 혁신기업 24개의 사례가 접수됐다.

대회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4개 기관, 4개 기업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전문가 평가 70%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국민 투표 30%로 진행된 본선 심사에는 전문가 5인과

국민평가단 5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참여했다. 심사단은 공공성, 사회적 가치, 혁신조달 추진성과, 국민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이번 대회 대상은 기관과 기업 각각 1곳, 금상은 기관 1곳, 기업 2곳이 차지했으며 은상은 기관 2곳, 기업이 1곳이 수상했다.

특히 한전과 전남개발공사는 공공기관 부문에서 나란히 은상을 수상하며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은 7억3000만원 상당 혁신제품을 자체 구매하고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구축을 주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혁신제품 구매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LED 안내판 등 국민안전·건강을 위한 수요자제안형 과제 3건을 제안했다.

한전과 전남개발공사의 우수사례는 오는 12월7~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회 축사를 통해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로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7.76 (+15.17)
↓ 코스닥	872.10 (-1.19)
↑ 금리 (국고채 3년)	0.963 (+0.008)
↑ 환율 (USD)	1112.70 (+2.30)

2617.76

코스피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17포인트(0.58%) 오른 2617.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전날 세운 증가 기준 역대 최고치(2602.59)도 하루 만에 새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인 7263억원의 순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인 14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외국인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를 지속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9포인트(0.14%) 내린 872.10으로 마감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30%(200원) 오른 6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전날 기록했던 증가 기준 신고가(6만7500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溫택트’

전 영업점 ‘한겨울 쉼터’ 운영 햇팩·마스크도 무료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내년 2월 말까지 광주·전남·수도권 145개 모든 영업점에서 ‘한겨울 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 고객과 지역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다.

광주은행은 송종욱 은행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은행권 최초로 한겨울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점 운영시간 안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된다. 겨울철 필수품인 휴대용 햇팩과 KF94 마스크도 무료 제공한다. 여름에는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나눠준다.

박기원 영업기획부장은 “광주은행 한겨울 쉼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계절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며 “지역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개방하는 쉼터가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이진 장편소설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